

“한국불교 현실 통탄 재가가 바뀌 나가겠다”

바른불교재가모임 창립법회

바른불교재가모임(상임대표 우희중)은 3월 31일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창립법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법회에서 우희중 바른불교재가모임 상임대표는 창립선언문을 통해 향후 모임이 나아갈 지향점을 제시했다.

우 대표는 “한국불교계의 모습은 대표적인 조계종, 태고종 할 것 없이 재가가 보다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하며 “더 이상 바른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재가신도들이 나서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창립법회에서 운영위는 조운예 여성가족부 서기관과 김중규 재가연대교단장전선터 원장과 함께 김영국 연경 불교정책연구소장을 공동대표로 추진했으며, 운영위원 6명과 사무처장을 각각 인선했다. 또한 재가모임의 정관도 승인했다.

향후 사업 계획도 발표했다. 재가모임은 청정승가 회복을 위한 종단 내부 동력 활성화를 위해 △보시 거부 운동 및 바른 보시 운동 △재가불자 참여를 위한 릴레이 기고 △바람직한 사찰 및 스님 홍보 △재가불자가 참여하는 사찰의 순기능 홍보 사업 등을 전개한다.

또한 봉양사나 조계사에서 전국 재가불자대회를 연례화 하는 것을 비롯해 스승을 바르게 대우하는 재가불자상을 위한 재가모임 학당 개설 △재가모임 지역 지회 결성 △회원 간 교류 및 수행 공유 △타 재가단체나 승가, 이웃 종교 단체와의 교류와 협력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 ‘불자대상’ 공모

4월 24일까지 추천인 접수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불기2559년 불자대상 시행을 공모하고 4월 24일까지 후보를 추천 받는다. 불자대상은 불법홍포 및 한국불교 위상 제고, 불자의 자긍심 고취, 종단 발전과 홍보, 국가 및 사회발전에 공로가 큰 불자를 대상으로 하며, 외국인과 고인(故人), 단체를 포함한다.

후보자는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각 부서장 및 본종 산하사찰 주지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각 말사 주지는 교구본사 주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각급 포교단체와 신도단체는 포교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추천서와 공적사항 입증 자료 등을 꾸며 총무원 총무부에 제출하면 된다.

올해 불자대상 시상식은 부처님오신 날인 오는 5월 25일 서울 조계사 봉축법요식장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상패 및 부상금이 주어진다.

이어나 기자

“선학원과 대화로 갈등 해소”

정상화추진위 2일 첫 회의

15명 내외 상임위원회 구성 내부 의견 경청해 대화 추진 법등 스님 “신뢰 회복 우선” “강력 대응” 목소리도 다수



선학원 정상화를 위한 추진위원회(위원장 법등)가 4월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에서 추진위원장 법등 스님은 선학원과의 진정성 있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강성보다는 온건하게 일을 처리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선학원 정상화를 위한 추진위원회(위원장 법등)가 4월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에서 추진위원장 법등 스님은 선학원과의 진정성 있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강성보다는 온건하게 일을 처리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법등 스님은 추진위원회의 의견 나누기 시간에서 대화를 전제하듯 갈등 해소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스님은 “현재 조계종과 선학원의 문제는 상호 신뢰가 무너졌다는 것”이라며 “합의가 수차례 파기되다보니 서로 불신만 쌓였다. 많은 종도들의 의견을 들어 해결점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진위원회 출범에 맞춰 중진스님과 추진위원들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뒤 선학원과의 대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추진위원 스님들은 부정적

인 입장을 피력했다. 종회의원 중법 스님은 “선학원 이사진이 종회 중법을 부정하고 제적위원을 제출한 것은 위중한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선학원이 자체 수계식을 열 예정이지만, 종단은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인지 분문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중앙종회의원 함결 스님도 제201차 임시종회에서 미등록법인의 임직원·소속 사찰관리인 및 관리인의 도제에 대한 권리 제한과 징계가 7월31일까지 유예된 사실을 지적하며 “더 이상 유예는 힘들다. 7월31일 이전에 결과를 내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장사 주지 허정 스님은 “추진위원 사이에서도 의견의 일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추진위원회 내부 의견과 활동 목적들

부터 가다듬고 의견을 도출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전국선원수좌회 강설 스님은 수좌회가 종재에 나설 의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강설 스님은 “지난 수좌회 회의 때 당시 총무부장의 요청으로 대책반을 꾸렸으나 상황이 급변해 활동을 중단했다”면서 “4월 7일 회의에서 수좌회가 선학원 이사장과의 면담을 추진하는 안건을 논의한 후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추진위원회는 조계종 총무부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종무기관에서 2명, 종회의원 3명, 교구본사주지 3명, 중진스님 3명, 선원에서 3명과 전국비구니회 수석 부회장 등 15명 안팎에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사업계획도 발표했다. 위원회는 향후 사업으로 △선학원 근현대 역사 정리 △홍보자료 제작 및 배포 △선학원 관련자료 수집 △중앙종회 등과 공동 대응 추진 등의 사업을 진행하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또한 선학원 임원진과 대화 및 협의의 진행을 비롯해 선학원 관련 사찰 대응 스님들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선학원 분원장·문도 대상 좌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추진위원 79명 가운데 42명이 참석했다. 또한 김광식 동국대 교수가 ‘조계종과 선학원, 동근(同根)의 역사 및 이념’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올해 남북불교 교류 ‘청신호’ 켜지나

천태종·진각종도

北 조불련과 회담

광복70년을 맞는 올해 남북불교 교류에 청신호가 켜졌다. 조계종에 이어 천태종과 진각종도 잇달아 조선불교도연맹을 만나 올해 교류 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천태종 총무원장 준광 스님과 북한 조선 불교도연맹 강수린 위원장이 3월 28일 중국 라오닝성 선양 칠보산 호텔에서 만나 첫 공식 회담을 진행했다.

남북을 대표하는 두 불교지도자들이 경색된 남북불교 교류현황에 대해 의견을 활발히 개진한 후 올해 발전적 교류사업을 전개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준광 천태종 총무원장과 강수린 위원장은 또 남북 불교교류사업의 실무적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 개성서 다시 별도로 만나 결정키로 협의 했다. 천태종은 이번 회담에서 △영통사 복원 10주년 기념 평화통일기원대법회(10월) △대각국



천태종 총무원장 준광 스님과 대표단은 3월 28일(사진 왼쪽) 진각종 총무부장 덕정 정사와 대표단은 3월 30일(사진 오른쪽) 각각 북쪽 조불련을 만나 올해 교류계획을 논의했다.

사 의천 스님 914주기 열반다례제(11월) △개성 지역 사찰 불사의 건 △남북청소년 문화교류의 건 △개성지역 불교문화재 고증 토론회 개최의 건 △개성지역 성지순례의 건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각종 총무부장 덕정 정사와 3월 30일 오후 중국 선양 칠보산호텔에서 북한 조불련 강수린 위원장을 만나 상호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덕정 정사는 통리원장 회정 정사의 인사 메시지를 전하며 “광복 70주년과 6·15공동선언 15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를 맞아

남북 불교인들의 지혜로운 협력과 화합의 실천을 위해 나가자”며 “이를 위해 상호교류의 걸림돌을 제거하는데 힘을 모으고 실질적인 교류방안을 현실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만나 대화를 하자”고 말했다.

진각종은 이번 만남에서 조불련 측에 ‘분단극복 평화통일 공동법회’를 6월중 묘향산 보현사에서 봉행할 것과 남북 불교도 공동학술대회를 10월 중 평양과 서울 혹은 제3의 장소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김주일 기자 kimj4217@hyunbul.com

“공존·상생·합심의 통일 담론 준비 중”

자승 스님, 흥용표 통일부 장관 예방서 밝혀

조계종이 올해 개발과 발표를 계획하고 있는 종단 차원의 통일담론의 기초가 공존과 상생, 합심임을 재차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3월 31일 흥용표 통일부 장관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남북이 갈등 없이 하나로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종단 차원의 통일담론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승 스님은 “몇 년 사이 여러 차례 북측 인사들과 만나보니 남과 북이 서로를 신뢰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절감했다. 서로가 신뢰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공존과 상생, 합심을 조계종 통일담론의 세 가지 원칙으로 소개했다.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닌 함께 대화해

야 한다는 뜻에서 ‘공존’을,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데에서 ‘상생’을, 민족 동질감 회복을 위해 ‘합심’을 제시했다는 게 자승 스님의 설명이다.

이어 스님은 “정부와 종단의 통일론이 다르면 국민들에게 혼선을 빚을 수 있다”면서 “완성단계에 이르면 통일부와 내용을 공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흥용표 장관은 “공존과 상생, 합심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 정책 방향과 일치한다”면서 “통일담론을 바탕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해주시면 정부에서도 적극 협조토록 하겠다. 이런 민간교류의 노력들은 향후 통일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3월 31일 흥용표 통일부 장관의 예방을 받았다.

“조계종 종회, 정책 전문성 결여”

NGO모니터단 201차 임시회 평가 보고서 발표

“개원 초기라 의장과 사무처장의 의사 집행이 미흡했으며 종회의원들도 중앙종회법 등 관련법 및 종책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중앙종회가 운영되는 점이 아쉬웠다.”

중앙종회NGO모니터단(집행위원장 김중규, 이하 모니터단)은 지난 3월 17일부터 19일까지 열린 제201회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 같은 총평을 내놨다.

특히 모니터단은 안전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중앙종회법 위반 논란, 동국대 결의문 채택 과정서 자구수정 및 발표를 위장단과 일부 의원들에게 위임한 부분 등을 놓고 “종회의원들의 자질이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종회 개정안을 2개로 나누어 상정한 것이나 분회의에서 수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법체계상 맞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으며, 후보자 선출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도록 한 산중총회법 개정에 대해서는 “본사주지 선거 후유증을 막기 위

해 도입한 각종 제도들이 일시에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꼬집었다.

반면, 의례법 개정에 따라 4곳 이상의 교육기관과 대중처소에서 표준의례식안을 6개월 이상 시연키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탁상공론에 의한 개정이 아니라 충분한 시연 등을 통해 개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중앙종회의원들의 낮은 출석율에 대해서는 “총 77.5%의 출석율을 보였다. 16대 중앙종회가 시작한 초기라 의원들의 참석율이 높고 열의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다만 첫날 90%의 출석율이 회기 마지막 날 66.25%에 그친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지적했다.

모니터단은 이번 임시회 현장 모니터링 내용을 토대로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평가를 진행한 뒤 평가서를 채택·발표했다. 평가서는 3월 30일 조계종 중앙종회 사무처에 전달됐다.

신성민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2015년도 중국 한의사(중의사) 모집



헤인 스님
한국총장

한국 유학생 중국 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 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조기유학생 모집

- 초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x.co.kr

1. 특차모집

학과	학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40명	· 최종학력증명 1부(영문) · 최종성적증명 1부(영문)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매
석사과정	3년	1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2. 학교소개

- ▶ 세계최고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 부속병원3, 제약공장, 교육병원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 군입대 연기 가능
-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 학자금 대출가능
- ▶ 서울시에 대학 편입가능
-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3. 지원자격

-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 주지스님 추천자

5. 문의처

☎ 전화 : 86-25-84028478
86-13-585195431

☎ 팩스 : 86-25-84028479

◎ 한국상담 안내처 : 불교조계종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 전화 : (02)511-2026~7, (02)511-1080


■ 팩스 : (02)511-2028

■ http://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주소 : 中國 南京 亞凍 仙林大學城 南京中醫大學

한국 총장 헤인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藥大學)

중의대 침 세계 1위 대학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